



반드시 반복되는 수능 국어 기출의 논리

수능 국어 학습의 출발, 홀수 기출 분석 시리즈

박광일 선생님이 강조하는 올바른 수능 국어 기출 분석법을
홀수 기출 분석 시리즈에 모두 담았습니다.

우리가 기출을 분석해야만 하는 이유

- 1 기출 분석은 수능 국어의 성격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해 줍니다.
- 2 기출 분석은 수능 국어에서 출제자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 3 기출 분석은 수능 국어에서 출제자가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게 합니다.
- 4 기출 분석은 수능 국어 문제의 유형과 물어보는 방식을 이해하게 하고 정답을 도출하는 올바른 사고방식을 길러 줍니다.
- 5 기출 분석은 문제를 틀린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게 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수능 국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출 분석은 단순히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히는 과정이 아니라,
영역별로 지문의 구조와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정답과 오답을 결정하는
정확한 근거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

단계별 학습을 통해 수능 국어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 요소를 파악하고, 어떻게 근거를 찾아 정답을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1 단계 / 8주 완성

홀수 기출 평가원 최신 [문학 / 독서]



- 최신 6개년 평가원 기출 공통 과목의 전 문항을 영역별로 수록하여, 수능 국어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지문별 CHECK POINT와 문제 유형 분석을 통해 지문과 문제에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익히고, 평가원이 요구하는 사고방식을 체화할 수 있습니다.
- '문제적 문제', '모두의 질문' 등과 함께 자세하고 친절한 해설을 제시하여 혼자서도 완벽한 기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단계 / 5주 완성

홀수 기출 고난도 선별 (상) 학력평가



- 최신 7개년 학력평가에서 수능 출제 경향에 부합하는 기출을 선별하여 수록했습니다.
- 'PART 1 문학'은 수능 빈출 작가의 낯선 작품과 문제를 통해, 수능에서 어떤 작품이 출제되더라도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PART 2 독서'는 수능 빈출 개념을 상세하게 다룬 지문과 문제를 통해, 고난도 독서를 대비하기 위한 배경지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3 단계 + N / 8주 완성

홀수 기출 고난도 선별 (하) 평가원 [문학 / 독서] ⊗ 홀수 기출 N회독 평가원 모의고사



- 최신 평가원 출제 경향에 부합하는 고난도 평가원 기출을 선별하여 더욱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기출 분석 1~2단계를 거치며 체화한 지문 분석, 문제 풀이 방법을 적용하여 훈련함으로써 수능 국어 고득점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 최신 6개년 평가원 기출 공통 과목을 평가원 모의고사 형태로 제작했습니다.
- OMR 카드를 활용하여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 봄으로써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 문제를 풀고 난 후 약점 CHECK 분석표를 작성하여 나의 취약점을 진단함으로써 수능 국어 고득점을 위한 올바른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단계

홀수 기출 평가원 최신 [문학 / 독서] 학습 (8주 완성)



홀수 공부법 TIP

- ☑ **1단계에서는** 총 2권의 책을 학습합니다. 기출 분석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모든 지문마다 '지문 분석 빈칸 채우기'를 제공하였습니다. 빈칸을 채우며 지문 독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문의 구조와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 후 해설 책을 볼 때에는 정답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 분석 내용과 자신의 독해 과정을 비교해 보고, 다양한 학습 장치를 참고하여 선지의 정·오답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때 핵심은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정확한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 ☑ **1~2일차에는** 2026학년도 수능 문제를 풀고 해설 책에 수록된 '박광일의 CHECK POINT'를 참고하여 최신 수능 국어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자신의 문제 풀이를 점검합니다.
- ☑ **3일차부터는** 각 영역별 [기본] → [심화] 순으로 기출 분석을 합니다. 『홀수 기출 평가원 최신 [문학 / 독서]』에서는 난이도를 고려하여 [기본]과 [심화]를 각 지문의 상단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기출 분석을 처음 시작하는 학습자는 [기본] 지문을 학습한 후 [심화] 지문을 학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기출 문제는 수능 때까지 반복적으로 분석해야 하고, 학습자마다 시기별 학습 순서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원하는 지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책에서는 최신 6개월 기출을 연도순으로 배치했습니다.

학습 주차	홀수 기출 평가원 최신 [문학]	문제 책 페이지	홀수 기출 평가원 최신 [독서]	문제 책 페이지	학습 체크
1 주차	1일차 (월 일) INTRO 26 수능 [1~4] 기본 INTRO 26 수능 [5~9] 기본	P.014 P.016	INTRO 26 수능 [1~3] 기본 INTRO 26 수능 [4~9] 심화	P.014 P.016	<input type="checkbox"/>
	2일차 (월 일) INTRO 26 수능 [10~13] 기본 INTRO 26 수능 [14~17] 기본	P.020 P.022	INTRO 26 수능 [10~13] 심화 INTRO 26 수능 [14~17] 심화	P.020 P.022	<input type="checkbox"/>
	3일차 (월 일) PART 1 _ 현대시 ① 기본 PART 1 _ 현대시 ④ 기본	P.028 P.034	PART 1 _ 독서론 ① 기본 PART 1 _ 독서론 ② 기본	P.026 P.028	<input type="checkbox"/>
	4일차 (월 일) PART 1 _ 현대시 ⑤ 기본 PART 1 _ 현대시 ⑦ 기본	P.036 P.040	PART 1 _ 독서론 ③ 기본 PART 1 _ 독서론 ④ 기본	P.030 P.032	<input type="checkbox"/>
	5일차 (월 일) PART 1 _ 현대시 ⑧ 기본 PART 1 _ 현대시 ⑨ 기본	P.042 P.044	PART 1 _ 독서론 ⑤ 기본 PART 1 _ 독서론 ⑥ 기본	P.034 P.036	<input type="checkbox"/>
2 주차	1일차 (월 일) PART 1 _ 현대시 ② 심화 PART 1 _ 현대시 ③ 심화	P.030 P.032	PART 1 _ 독서론 ⑦ 기본 PART 1 _ 독서론 ⑧ 기본	P.038 P.040	<input type="checkbox"/>
	2일차 (월 일) PART 1 _ 현대시 ⑥ 심화 PART 1 _ 현대시 ⑩ 심화	P.038 P.046	PART 1 _ 독서론 ⑨ 기본 PART 1 _ 독서론 ⑩ 기본	P.042 P.044	<input type="checkbox"/>
	3일차 (월 일) PART 2 _ 고전시가 ② 기본 PART 2 _ 고전시가 ③ 기본	P.054 P.056	PART 1 _ 독서론 ⑪ 기본 PART 1 _ 독서론 ⑫ 기본	P.046 P.048	<input type="checkbox"/>
	4일차 (월 일) PART 2 _ 고전시가 ⑤ 기본 PART 2 _ 고전시가 ⑦ 기본	P.060 P.064	PART 1 _ 독서론 ⑬ 기본 PART 1 _ 독서론 ⑭ 기본	P.050 P.052	<input type="checkbox"/>
	5일차 (월 일) PART 2 _ 고전시가 ⑧ 기본 PART 2 _ 고전시가 ① 심화	P.066 P.050	PART 2 _ 인문·사회 ① 기본 PART 2 _ 인문·사회 ③ 기본	P.056 P.060	<input type="checkbox"/>
3 주차	1일차 (월 일) PART 2 _ 고전시가 ④ 심화 PART 2 _ 고전시가 ⑥ 심화	P.058 P.062	PART 2 _ 인문·사회 ④ 기본 PART 2 _ 인문·사회 ⑤ 기본	P.062 P.064	<input type="checkbox"/>
	2일차 (월 일) PART 2 _ 고전시가 ⑨ 심화 PART 3 _ 현대소설 ② 기본	P.068 P.074	PART 2 _ 인문·사회 ⑥ 기본 PART 2 _ 인문·사회 ⑧ 기본	P.066 P.070	<input type="checkbox"/>
	3일차 (월 일) PART 3 _ 현대소설 ③ 기본 PART 3 _ 현대소설 ⑦ 기본	P.078 P.086	PART 2 _ 인문·사회 ⑭ 기본 PART 2 _ 인문·사회 ⑰ 기본	P.082 P.088	<input type="checkbox"/>
	4일차 (월 일) PART 3 _ 현대소설 ⑨ 기본 PART 3 _ 현대소설 ⑩ 기본	P.090 P.094	PART 2 _ 인문·사회 ② 심화 PART 2 _ 인문·사회 ⑦ 심화	P.058 P.068	<input type="checkbox"/>
	5일차 (월 일) PART 3 _ 현대소설 ⑫ 기본 PART 3 _ 현대소설 ⑬ 기본	P.098 P.100	PART 2 _ 인문·사회 ⑨ 심화 PART 2 _ 인문·사회 ⑩ 심화	P.072 P.074	<input type="checkbox"/>

학습 주차		출수 기출 평가원 최신 [문학]	문제 책 페이지	출수 기출 평가원 최신 [독서]	문제 책 페이지	학습 체크
4 주차	1일차 (월 일)	PART 3 _ 현대소설 ⑭ 기본 PART 3 _ 현대소설 ⑮ 기본	P.102 P.104	PART 2 _ 인문·사회 ⑪ 심화 PART 2 _ 인문·사회 ⑫ 심화	P.076 P.078	<input type="checkbox"/>
	2일차 (월 일)	PART 3 _ 현대소설 ⑯ 기본 PART 3 _ 현대소설 ⑰ 심화	P.106 P.072	PART 2 _ 인문·사회 ⑬ 심화 PART 2 _ 인문·사회 ⑭ 심화	P.080 P.084	<input type="checkbox"/>
	3일차 (월 일)	PART 3 _ 현대소설 ⑱ 심화 PART 3 _ 현대소설 ⑲ 심화	P.080 P.082	PART 2 _ 인문·사회 ⑯ 심화 PART 3 _ 과학·기술 ① 기본	P.086 P.092	<input type="checkbox"/>
	4일차 (월 일)	PART 3 _ 현대소설 ⑳ 심화 PART 3 _ 현대소설 ㉑ 심화	P.084 P.088	PART 3 _ 과학·기술 ② 기본 PART 3 _ 과학·기술 ③ 기본	P.094 P.096	<input type="checkbox"/>
	5일차 (월 일)	PART 3 _ 현대소설 ㉒ 심화 PART 4 _ 고전산문 ① 기본	P.096 P.110	PART 3 _ 과학·기술 ④ 기본 PART 3 _ 과학·기술 ⑦ 기본	P.098 P.104	<input type="checkbox"/>
5 주차	1일차 (월 일)	PART 4 _ 고전산문 ② 기본 PART 4 _ 고전산문 ③ 기본	P.112 P.116	PART 3 _ 과학·기술 ⑧ 기본 PART 3 _ 과학·기술 ⑬ 기본	P.106 P.118	<input type="checkbox"/>
	2일차 (월 일)	PART 4 _ 고전산문 ④ 기본 PART 4 _ 고전산문 ⑥ 기본	P.118 P.122	PART 3 _ 과학·기술 ⑰ 기본 PART 3 _ 과학·기술 ⑤ 심화	P.126 P.100	<input type="checkbox"/>
	3일차 (월 일)	PART 4 _ 고전산문 ⑧ 기본 PART 4 _ 고전산문 ⑨ 기본	P.126 P.128	PART 3 _ 과학·기술 ⑥ 심화 PART 3 _ 과학·기술 ⑨ 심화	P.102 P.108	<input type="checkbox"/>
	4일차 (월 일)	PART 4 _ 고전산문 ⑩ 기본 PART 4 _ 고전산문 ⑪ 기본	P.130 P.132	PART 3 _ 과학·기술 ⑩ 심화 PART 3 _ 과학·기술 ⑪ 심화	P.112 P.114	<input type="checkbox"/>
	5일차 (월 일)	PART 4 _ 고전산문 ⑬ 기본 PART 4 _ 고전산문 ⑭ 기본	P.136 P.138	PART 3 _ 과학·기술 ⑫ 심화 PART 3 _ 과학·기술 ⑭ 심화	P.116 P.120	<input type="checkbox"/>
6 주차	1일차 (월 일)	PART 4 _ 고전산문 ⑮ 기본 PART 4 _ 고전산문 ⑯ 기본	P.140 P.142	PART 3 _ 과학·기술 ⑮ 심화 PART 3 _ 과학·기술 ⑯ 심화	P.122 P.124	<input type="checkbox"/>
	2일차 (월 일)	PART 4 _ 고전산문 ⑵ 심화 PART 4 _ 고전산문 ⑷ 심화	P.120 P.124	PART 4 _ 주제 복합 ① 기본 PART 4 _ 주제 복합 ② 기본	P.130 P.134	<input type="checkbox"/>
	3일차 (월 일)	PART 4 _ 고전산문 ⑫ 심화 PART 5 _ 갈래 복합 ① 기본	P.134 P.146	PART 4 _ 주제 복합 ④ 기본	P.142	<input type="checkbox"/>
	4일차 (월 일)	PART 5 _ 갈래 복합 ② 기본 PART 5 _ 갈래 복합 ③ 기본	P.150 P.154	PART 4 _ 주제 복합 ⑧ 기본	P.158	<input type="checkbox"/>
	5일차 (월 일)	PART 5 _ 갈래 복합 ⑤ 기본 PART 5 _ 갈래 복합 ⑨ 기본	P.162 P.178	PART 4 _ 주제 복합 ⑨ 기본	P.162	<input type="checkbox"/>
7 주차	1일차 (월 일)	PART 5 _ 갈래 복합 ⑩ 기본 PART 5 _ 갈래 복합 ⑬ 기본	P.182 P.194	PART 4 _ 주제 복합 ⑩ 기본	P.166	<input type="checkbox"/>
	2일차 (월 일)	PART 5 _ 갈래 복합 ⑮ 기본 PART 5 _ 갈래 복합 ④ 심화	P.202 P.158	PART 4 _ 주제 복합 ⑬ 기본 PART 4 _ 주제 복합 ⑮ 기본	P.178 P.186	<input type="checkbox"/>
	3일차 (월 일)	PART 5 _ 갈래 복합 ⑥ 심화	P.166	PART 4 _ 주제 복합 ⑯ 기본 PART 4 _ 주제 복합 ⑰ 기본	P.190 P.194	<input type="checkbox"/>
	4일차 (월 일)	PART 5 _ 갈래 복합 ⑷ 심화	P.170	PART 4 _ 주제 복합 ③ 심화	P.138	<input type="checkbox"/>
	5일차 (월 일)	PART 5 _ 갈래 복합 ⑧ 심화	P.174	PART 4 _ 주제 복합 ⑤ 심화	P.146	<input type="checkbox"/>
8 주차	1일차 (월 일)	PART 5 _ 갈래 복합 ⑪ 심화	P.186	PART 4 _ 주제 복합 ⑥ 심화	P.150	<input type="checkbox"/>
	2일차 (월 일)	PART 5 _ 갈래 복합 ⑫ 심화	P.190	PART 4 _ 주제 복합 ⑷ 심화	P.154	<input type="checkbox"/>
	3일차 (월 일)	PART 5 _ 갈래 복합 ⑭ 심화	P.198	PART 4 _ 주제 복합 ⑪ 심화	P.170	<input type="checkbox"/>
	4일차 (월 일)	PART 5 _ 갈래 복합 ⑯ 심화	P.206	PART 4 _ 주제 복합 ⑫ 심화	P.174	<input type="checkbox"/>
	5일차 (월 일)	PART 5 _ 갈래 복합 ⑰ 심화	P.208	PART 4 _ 주제 복합 ⑭ 심화	P.182	<input type="checkbox"/>

2 단계

홀수 기출 고난도 선별 (상) 학력평가 학습 (5주 완성)

홀수 공부법 TIP

☑ **2단계에서는** 문제 책의 각 지문마다 '평가원 연계 POINT'를 수록하여 학력평가 기출에서 발견한 평가원 기출의 학습 요소를 소개하고, 이와 함께 풀어 보면 좋을 평가원 기출을 안내하였습니다. 『홀수 기출 평가원 최신 [문학 / 독서]』에서 해당 기출 지문을 찾아 오늘 풀어 본 문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며 복습합니다.

☑ **매일매일** 1단계에서 학습한 지문 분석법과 문제 풀이법을 떠올리며 문학과 독서를 한 세트씩 풀고, 해설 책을 참고하여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 내가 찾은 근거와 해설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세요.



학습 주차	PART 1 [문학]	PART 2 [독서]
1주차	CHAPTER 1 현대시 5 SET	CHAPTER 1 인문 5 SET
2주차	CHAPTER 2 고전시가 4 SET CHAPTER 3 현대소설 1 SET	CHAPTER 2 사회 5 SET
3주차	CHAPTER 3 현대소설 4 SET CHAPTER 4 고전산문 1 SET	CHAPTER 3 과학 5 SET
4주차	CHAPTER 4 고전산문 4 SET CHAPTER 5 갈래 복합 1 SET	CHAPTER 4 기술 5 SET
5주차	CHAPTER 5 갈래 복합 5 SET	CHAPTER 5 주제 복합 5 SET

*해당 교재에는 세부 계획표가 제공됩니다.

출수 기출 고난도 선별 (하) 평가원 [문학 / 독서] & 출수 기출 N회독 평가원 모의고사 학습 (8주 완성)

3 단계

출수 공부법 TIP

☑ 3단계에서는 총 3권의 책을 학습합니다. 먼저 1~2단계에서 학습한 지문 분석법과 문제 풀이법을 떠올리며 『출수 기출 고난도 선별 (하) 평가원 [문학 / 독서]』에서 각각 한 세트씩 풀고 해설 책을 참고하여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 내가 찾은 근거와 해설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세요.

☑ 출수 기출 N회독 평가원 모의고사는 ① 실전처럼 제한 시간을 두고 문제를 풀어 봅니다. ② 채점을 한 후 '약점 CHECK 분석표'를 작성하여 영역별, 문제 유형별로 나의 취약점을 진단합니다.



학습 주차	출수 기출 고난도 선별 (하) 평가원 [문학]	출수 기출 고난도 선별 (하) 평가원 [독서]	출수 기출 N회독 평가원 모의고사
1주차	PART 1 현대시 5 SET	PART 1 인문·예술 5 SET	1회차 2회차
2주차	PART 1 현대시 1 SET PART 2 고전시가 4 SET	PART 1 인문·예술 4 SET PART 2 사회 1 SET	3회차 4회차
3주차	PART 3 현대소설 5 SET	PART 2 사회 5 SET	5회차 6회차
4주차	PART 3 현대소설 5 SET	PART 2 사회 2 SET PART 3 과학 3 SET	7회차 8회차
5주차	PART 3 현대소설 1 SET PART 4 고전산문 4 SET	PART 3 과학 5 SET	9회차 10회차 11회차
6주차	PART 4 고전산문 3 SET PART 5 갈래 복합 2 SET	PART 3 과학 3 SET PART 4 기술 2 SET	12회차 13회차 14회차
7주차	PART 5 갈래 복합 5 SET	PART 4 기술 5 SET	15회차 16회차
8주차	PART 5 갈래 복합 2 SET PART 6 극 3 SET	PART 4 기술 2 SET PART 5 주제 복합 3 SET	17회차 18회차

*해당 교재에는 세부 계획표가 제공됩니다.

출수 기출 분석 시리즈 6개월 학습 PLAN을 마친 후에는
수능 때까지 『출수 기출 평가원 최신 [문학 / 독서]』 위주로 반복 학습하되,
『출수 기출 N회독 평가원 모의고사』를 통해 파악한 나의 취약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 첫째** 2021학년도~2026학년도 평가원 기출 문학 영역의 전 지문과 문제를 수록하여 최신 출제 경향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 둘째** 박광일 선생님의 2026학년도 수능 국어 문학에 대한 총평, 지문별 CHECK POINT 및 문제별 유형 분석을 통해 2027학년도 수능 대비 학습 전략을 제시합니다.

문제 책

PART 3 **심화 2026학년도 9월 모평**
현대소설 ① **염상섭, 「두 출발」**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위세를 떨치던 안양덕 집안에서 머슴으로 일하
 김원석이 양덕영감의 집에서 명절 떡을 훔쳐 온다. 이 떡으로 !

빈칸 채우기 & 문제 풀기

‘지문 분석 빈칸 채우기’를 하면서 작품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며 문제를 풀어 보세요.

최신 평가원 기출 갈래별 수록

최근 6년간 평가원이 출제한 수능과 모의평가 문학 영역을 갈래별로 수록하였습니다. 한 세트당 5~6분 안에 풀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 지문을 두 장면으로 나누고, 장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장면 1 _____ 착용 정책에 불만을 품은 사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던 중, 그들의 이야기를 비웃는 듯한 집역부 사내 _____ 는 직업 중 _____ 을 잃는 사람도 있다고 말함

1. [A]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의 전모를 제한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를 통해 인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해설 책

(다) 회자가 속세로부터 벗어난 공간에 있음
 ㉠ 「창산이 둘러 있고 벽수도 흘러간다」
 풍월이 벗이 되어 ㉡ 「백운(白雲)」에 누웠으니
회자가 실제로 가깝게 여기는 대상
 백구(白駒)야 백년을 함께 놀자 하노라 <제2수>
 - 채현, 「석문가」 -

작품 해설

문제 풀이와 관련된 작품의 특징과 핵심 내용을 지문에 정리하여 출제자의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고전시가 현대어 풀이

고전시가 원문 옆에 현대어 풀이를 배치하여 작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대어 풀이

때마침 부는 가을바람 반갑게도 보이는구나
 말술이 다나 쓰나 술병을 메고 벗을 불러
 언덕 너머 어촌에 뱃놀이 가자구나

이것만은 헛기차

- *내: 안개.
- *현사할사: 아단스럽다.
- *천공: 조물주.
- *만수천림: 온갖 나무들.
- *성현: 성인과 현인을 아울러 이르는 말.

이것만은 헛기차

지문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를 풀이하여 기출 분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휘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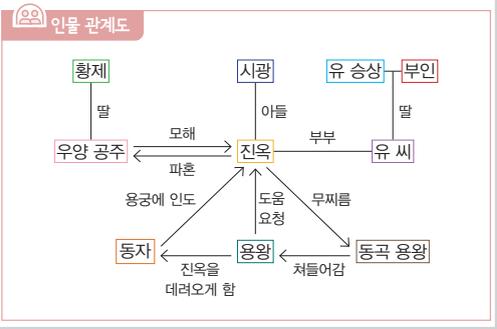
셋째 모든 문항의 정·오답에 대한 근거와 해설을 친절하게 제시하여 혼자서도 완벽한 기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 책의 마지막 장에서 **빠른 정답 찾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항별로 제시된 문제의 유형과 정답률을 통해 나의 약점 유형을 진단하고 체감 난이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설 책

전체 줄거리

명나라 청주에 살던 김시광과 여 부인은 화주암에 발원을 올려 아들 진옥을 낳는다. 그러나 남 선수가 일으킨 전쟁으로 시광은 무인도에 버려지고, 여 부인은 중이 되며, 진옥은 부모와 생이별한다. 진옥은 화산 도사에게 학문과 무예를 익히고, 유 승상의 딸과 인연을 맺는다. 진옥은 과거에 급제하고, 이에 우양 공주와 결혼하려는 황제의 명을 거절하여 하옥된다. 진옥은 감옥에서 풀려난 뒤 유 소저와 혼인한다. 재침입한 남 선수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진옥은 혼자 배를 타고 돌아오다 아버지와 재회하고, 용왕의 부탁으로 동국 용왕을 물리친다. 한편, 우양 공주가 진옥을 모함하면서 유 소저는 죽을 위기에 처하고, 때마침 도착한 진옥이 용왕에게 받은 선물로 유 소저의 목숨을 구한다. 화산 도사의 도움으로 어머니와 재회한 진옥은 우양 공주가 태자 독살의 누명을 씌우면서 위기에 처하나, 화산 도사가 준 약으로 태자를 살리고 죄인들을 처단한다. 이후 진옥의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하며 행복하게 산다.



전체 줄거리 & 인물 관계도

작품 전체의 줄거리와 인물 관계도를 제공하여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관계를 보여 주고 전체 맥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출잡기

① 대구: 비슷한 여조나 구조를 가진 구절이나 문장 두 개를 짝지어 배치하는 표현 기법.
 ④ 대비: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

기출잡기

문학 개념어 풀이를 통해 표현상,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 유형을 해결하고, 수능 국어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 정답률 65

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권호문의 「한거십팔곡」은 지향하는 삶을 실천하는 태도의 변화 과정을 형상화한 연시조로, <제1수>부터 <제19수>까지의 내용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보기 분석

- 권호문, 「한거십팔곡」
- 지향하는 삶을 실천하는 태도의 변화 과정을 형상화
- <제1수>~<제19수> 내용 연결됨

정답풀이

① <제3수>의 '임천이 좋으니라'에는 <제1수>의 '마음에 하고자 하여'에 담긴 태도와는 다른 태도가 나타난다.

〈보기〉에서 「한거십팔곡」은 지향하는 삶을 실천하는 태도의 변화 과정을 형상화하였다고 했다. <제3수>의 '임천이 좋으니라'는 자연에 묻혀 조화

문항 해설

혼자서도 완벽한 기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보기> 분석과 모든 문항의 정·오답의 근거를 담은 친절하고 상세한 해설을 제시했습니다.

모두의 질문 • 4~④번

Q: 이대붕이 '천우신조하옵고, 성상의 하해지덕으로' 무인절도에서 '죽었던 아버지를 만났'다고 했는데, 이때 '천우신조'의 사전적인 뜻이 '하'의 조력

문제적 문제 • 2~③번

학생들이 정답 외에 가장 많이 고른 선지는 ③번이다. '봉당에 불을 켜는 분위기'와 '공각지'의 이미지가 시골의 정경, 즉 향토적인 정경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단어의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보기>에 따르면 (가)는 '향토적인 정경 속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을 통해 점점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고 했다. '봉당'은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마루를 놓을 자리에 마루

모두의 질문 & 문제적 문제

온라인 강의와 현장에서 수험생들이 많이 한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고,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심화 분석하여 매력적인 오답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답을 고르는 방법을 익히도록 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책	해설 책
INTRO	① 작자 미상, 「수궁가」	P.014	P.006
	② 이시영, 「그리움」 / 고재중, 「감나무 그늘 아래」 / 이이, 「최립에게 주는 글」	P.016	P.012
	③ 박태순, 「독가촌 풍경」	P.020	P.019
	④ 구강, 「북새곡」 / 작자 미상, 「이 시를 저 시름～」 / 작자 미상, 「강원도 설화지를～」	P.022	P.025

현대시		기출 연도	문제 책	해설 책
PART 1	① 황동규, 「살구꽃과 한때」 / 신석정, 「역사」	2026학년도 6평	P.028	P.034
	② 이기철, 「청산행」 / 김현승, 「사실과 관습: 고독 이후」	2025학년도 6평	P.030	P.038
	③ 조지훈, 「맹세」 / 오규원, 「봄」	2024학년도 6평	P.032	P.042
	④ 유치환, 「채전」 / 나희덕, 「음지의 꽃」	2023학년도 수능	P.034	P.046
	⑤ 신동엽, 「항아」 / 기형도, 「전문가」	2023학년도 6평	P.036	P.050
	⑥ 오장환, 「종가」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2022학년도 9평	P.038	P.053
	⑦ 김기림, 「연료」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2022학년도 6평	P.040	P.057
	⑧ 이용악, 「그리움」 / 이시영, 「마음의 고향 2 - 그 언덕」	2021학년도 수능	P.042	P.060
	⑨ 김수영, 「사랑」 / 김혜순,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2021학년도 9평	P.044	P.063
	⑩ 조지훈, 「산상의 노래」 /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2021학년도 6평	P.046	P.066

고전시가		기출 연도	문제 책	해설 책
PART 2	① 작자 미상, 「화전가」 / 작자 미상, 「공명을 헤아리니～」 / 채헌, 「석문가」	2026학년도 9평	P.050	P.072
	② 작자 미상, 「갑민가」 / 작자 미상, 「녹양방초 언덕에～」	2025학년도 수능	P.054	P.077
	③ 정철, 「풍파에 일렁이던 배～」 / 정철, 「심위산 서너 바퀴～」 / 조준성, 「호아곡」	2025학년도 9평	P.056	P.082
	④ 김인겸, 「일동장유가」 / 유박, 「화암구곡」	2024학년도 수능	P.058	P.086
	⑤ 정철, 「성산별곡」 / 작자 미상, 「생매 잡아 길 잘 들어～」	2024학년도 9평	P.060	P.091
	⑥ 이현보, 「어부단가」 / 박인로, 「소유정가」	2023학년도 9평	P.062	P.096
	⑦ 정훈, 「탄궁가」 / 위백규, 「농가」	2022학년도 수능	P.064	P.100
	⑧ 허난설헌, 「규원가」 / 작자 미상,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2022학년도 9평	P.066	P.104
	⑨ 정철, 「관동별곡」	2021학년도 6평	P.068	P.108

현대소설		기출 연도	문제 책	해설 책
PART 3	① 염상섭, 「두 출발」	2026학년도 9평	P.072	P.114
	② 이범선, 「표구된 휴지」	2026학년도 6평	P.074	P.119
	③ 이청준,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	2025학년도 수능	P.078	P.124
	④ 윤흥길, 「날개 또는 수갑」	2025학년도 9평	P.080	P.129
	⑤ 임철우, 「아버지의 땅」	2025학년도 6평	P.082	P.133
	⑥ 박태원, 「골목 안」	2024학년도 수능	P.084	P.138
	⑦ 양귀자, 「원미동 시인」	2024학년도 9평	P.086	P.143
	⑧ 최명익, 「무성격자」	2024학년도 6평	P.088	P.148
	⑨ 최명희, 「쓰러지는 빛」	2023학년도 수능	P.090	P.153
	⑩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5」	2023학년도 9평	P.094	P.158
	⑪ 채만식, 「미스터 방」	2023학년도 6평	P.096	P.162
	⑫ 윤흥길,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2022학년도 수능	P.098	P.166
	⑬ 홍성원, 「무사와 악사」	2022학년도 6평	P.100	P.170
	⑭ 서영은, 「사막을 건너는 법」	2021학년도 수능	P.102	P.174
	⑮ 이기영, 「고향」	2021학년도 9평	P.104	P.179
	⑯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2021학년도 6평	P.106	P.184

PART
4

고전산문	기출 연도	문제 책	해설 책
① 작자 미상, 「이화전」	2026학년도 9평	P.110	P.190
② 작자 미상, 「김진옥전」	2026학년도 6평	P.112	P.194
③ 작자 미상, 「정을선전」	2025학년도 수능	P.116	P.199
④ 수산, 「광한루기」	2025학년도 9평	P.118	P.204
⑤ 작자 미상, 「이대봉전」	2025학년도 6평	P.120	P.208
⑥ 작자 미상, 「김원전」	2024학년도 수능	P.122	P.213
⑦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2024학년도 9평	P.124	P.218
⑧ 작자 미상, 「상사동기」	2024학년도 6평	P.126	P.223
⑨ 조위한, 「최적전」	2023학년도 수능	P.128	P.228
⑩ 작자 미상, 「정수정전」	2023학년도 9평	P.130	P.233
⑪ 작자 미상, 「소현성록」	2023학년도 6평	P.132	P.238
⑫ 작자 미상, 「박태보전」	2022학년도 수능	P.134	P.243
⑬ 작자 미상, 「배비장전」	2022학년도 9평	P.136	P.248
⑭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	2022학년도 6평	P.138	P.252
⑮ 작자 미상, 「최고운전」	2021학년도 수능	P.140	P.257
⑯ 작자 미상, 「심청전」	2021학년도 9평	P.142	P.262

PART
5

갈래 복합	기출 연도	문제 책	해설 책
① 박목월, 「경사」 / 이수익, 「달빛 체질」 / 채제공, 「용연사기」	2026학년도 9평	P.146	P.270
② 홍정유, 「동유가」 / 이태준, 「해촌 일지」	2026학년도 6평	P.150	P.276
③ 장석남, 「배를 밀며」 / 허수경, 「혼자 가는 먼 집」 / 이광호,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P.154	P.282
④ 백석, 「북방에서-정현웅에게」 / 문태준, 「살얼음 아래 같은 데 2 - 생각」 / 유본예, 「이문원노종기」	2025학년도 9평	P.158	P.288
⑤ 작자 미상, 「우부가」 / 성현, 「타농설」	2025학년도 6평	P.162	P.294
⑥ 김종길, 「문」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유한준, 「잇음을 논함」	2024학년도 수능	P.166	P.299
⑦ 박용래, 「월훈」 / 김영랑, 「연 1」 / 서영보, 「문의당기」	2024학년도 9평	P.170	P.306
⑧ 권호문, 「한겨십팔곡」 / 김낙행, 「기취서행」	2024학년도 6평	P.174	P.312
⑨ 이항, 「도산십이곡」 / 김득연, 「지수정가」 / 김훈, 「겸재의 빛」	2023학년도 수능	P.178	P.318
⑩ 박두진, 「별 - 금강산시 3」 / 신경림, 「길」 / 백석, 「편지」	2023학년도 9평	P.182	P.324
⑪ 황희, 「사시가」 / 조우인, 「자도사」 / 공선옥, 「그 시절 우리들의 집」	2023학년도 6평	P.186	P.330
⑫ 이육사, 「초가」 / 김관식, 「거산호 2」 / 이육, 「담초」	2022학년도 수능	P.190	P.336
⑬ 오영수, 「갯마을」 / 오영수 원작, 신봉승 각색, 「갯마을」	2022학년도 9평	P.194	P.341
⑭ 김시습, 「유객」 / 김광욱, 「울리유곡」 / 김용준, 「조어삼매」	2022학년도 6평	P.198	P.347
⑮ 정철, 「사미인곡」 / 신희, 「창 밖의 워석버석~」 / 유본학,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2021학년도 수능	P.202	P.353
⑯ 문학적 의미 생성의 세 가지 양상 / 윤선도, 「만흥」 / 이덕무, 「우언」	2021학년도 9평	P.206	P.359
⑰ 작자 미상, 「전우치전」 / 최동훈, 「전우치」	2021학년도 6평	P.208	P.365

INTRO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본)

[중모리] 그때에 사슴이 발론하되 근래 인간이 하 무서워 짐승을 잡아먹기 온갖 피가 다 생기고 산중에 수목이 없어 은신할 곳 없어지니 각기 의견 들어 보면 방책이 있을런가 이 모임을 했사오니 수령님의 좋은 피를 일러 주옵소서

[아니리] 호랑이가 수령 말을 듣더니마는 거두름을 피우며 오늘은 노소고하를 막론하고 자세히 말해 보라 토끼가 여짜오되

[자진모리] 사냥개라 허는 것은 같은 우리 모족(毛族)으로 사람 집에 기식하니 제 무슨 아점으로 내 잘 맡는 자랑하여 심산궁곡 층암절벽 찾고 찾아 들어와 동계 간 살해만 하니 수령님 이후로는 사냥개를 있는 대로 다 잡아 잡수오면 그 덕이 모든 금수에 게 미치오리다

[아니리] 호랑이 듣더니만 다 잡아 먹었으면 네 원통함도 풀고 나도 배부른 꼴을 보련마는 일등 포수가 따라다녀 어설피 물라다가 조총에 불이 번듯 탄환이 쑥 나오면 거 내 신세는 어쩔 것이냐

그때에 별주부 저기 토 선생 계시오 부른다는 것이 수로 팔천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오자니 아래턱이 뿔뿔하여 토 자가 살짝 늘어져 호 자로 되었었다 저기 호 생원 계시오 불러 놓으니 첩첩산중 호랑이가 생원 말 듣기는 제 평생 처음이라 ㉠반기 듣고 내려오느디

[엇모리]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에머리를 흔들며 양 귀 찢어지고 몸은 얼송털송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남고 동아 같은 뒷다리 전동 같은 앞다리 새낫 같은 발톱으로 엄동설한 백설 격으로 잔디 뿌리 왕모래를 좌르르르 흘리며 주홍 같은 입 벌리고 흥행행 허는 소리 산천이 진동하고 강산이 뒤늦고 땅이 푹 꺼지던 듯 자라가 ㉡깜짝 놀래여 목을 움치고 가만히 었졌을 제

[아니리] 호랑이가 척 내려와 이것 무엇인고 이리 보아도 둥굴 둥굴 저리 보아도 둥굴 둥굴아 하고 불려도 대답이 없었다 옳다 이것 한 입가심 허여 볼까

자라가 ㉢깜짝 놀래여 여보 당신이 뉘라 하시오

호랑이 깜짝 놀래 에끼 이것 보아라 도리죽치 속에 배암 잡아 넣어 놓은 것같이 생긴 것이 인사성은 밝네 나는 ㉣이 산중 지키는 호 생원 어른이로다

자라가 호랑이란 말을 듣고서 겁짐에 바로 일러 나는 명색이 자라 새끼요

[중모리] 호랑이 ㉤반기 듣고 얼시구나 좋을시고 내 평생에 원하기를 왕배탕이 원일러니 오늘날 만났구나 맞진 진미를 먹어 보자 으르르르양 허고 달려드니 자라 듣고 깜짝 놀래여 아이고 내 자라 아니요 이놈 그러면 무엇인고 내가 두꺼비요 두꺼비 같

으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채로 불에 살라 술에 타 먹었으면 만병 회춘 명약이라니 너를 먹으리라 아이고 내 남생이요 남생이 같으면 더욱 좋다 습기에는 제일이라 하니 너를 산 채로 먹으리라

[아니리] 별주부 듣고 기가 막혀 이 급살 맞아 죽을 놈이 동의 보감을 얼마나 통달하였는지 보는 대로 약 취해 먹기로만 드니 기왕 죽을 바에는 속임수나 한번 써 보고 죽을 밖에 없구나 허고 목을 길게 내놓으며 네 이놈 호랑아 내 목 나간다

호랑이 ㉥깜짝 놀래 에끼 이것 목 나온다 고만 나오시오 하루 수천 발 나오겠소 대체 당신 명색이 무엇이오

나는 수국 전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별나리로다 이놈 내 목 이 모양 된 내력을 들어 보아라

[자진모리] 우리 ㉦수궁 퇴락하여 영덕전 새로 질 제 일천팔백 칸 기와를 내 손으로 올리다가 추녀 끝에 푹 떨어져 목으로 잘 각 꺼꾸러져 이 모양이 되었기로 명의다려 문의한즉 호랑이 쓸개를 열 보만 먹으면 목이 즉효한다기로 우리 수궁 도리랑귀신 잡아 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더니 쓸개 한 보 못 주겠느냐 도리랑귀신 게 있느냐 이 호랑이 배 갈라라 앞으로 기어들며 도리랑 도리랑 허고 달려들어 호랑이 아랫도리를 꼭 물고 뺨 돌아 놓으니

[아니리] 호랑이 ㉧질색허여 아이고 별나리 이것 좀 놓아주시오 이놈 잔말 말고 쓸개만 내놓아라 호랑이 그 육중한 놈이 자라에게 매달려 애걸을 허느디

[중모리] 별나리 전에 비나이다 나는 오대독신으로 오십이 다 되도록 슬하 일점혈육이 없소 만일 내가 죽게 되면 선영에 죄가 망극허오 차라리 내 원눈이나 하나 빼 잡수시오 이놈 잔말 말고 쓸개만 내나라 여기만 놓아주면 당장에 쓸개를 드리리다

[아니리] 별주부 가만히 생각한즉 쓸개 주겠다고 놓아 달라는 것이 얼주검이 된 모양이라 꼭 물었던 호랑이 아랫도리를 슬그머니 늦춰 놓으니

[휘모리] 호랑이 몽그랴다 후다닥 뛰어갈 제 급한 난리 화살 단 듯 조총에서 철환 달듯 오림에서 조조 달듯 산을 넘고 바다 건너 홀연히 간 곳 없네

[아니리] 전라도 해남에서 냇다 뿔 놈이 의주 압록강 가에서 숨을 내쉬고 한편을 살펴보는데 남생이 한 마리가 뽀죠히고 내다보니 별주부로 알았었다 에끼 저놈 그 새 저기 쫓아왔구나 게서 또 후다닥 빼 놓은 것이 함경도 ㉨세수람 고개에다 털럼 올라앉아 장담을 허것다 내 용맹이나 뉘 게 여기까지 살아왔지 잡놈 같았으면 하마 그놈 뱃속에 굳었으려다

- 작자 미상, 「수궁가」 -

>> 지문을 세 장면으로 나누고, 장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장면 01	산중 짐승들이 모여 인간을 피할 방법을 의논하던 중, 별주부가 실수로 토 선생 대신 _____ 생원을 부르자 호랑이가 반가워하며 내려감
장면 02	자라(별주부)는 호랑이가 자신을 약으로 취해 먹으려고 하자, 목을 길게 내놓고 _____ 를 써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함
장면 03	자라가 호랑이 쓸개를 먹으면 자신의 목이 낫는다며 겁을 주자, _____ 는 멀리 도망감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슴이 호랑이에게 대책을 구하자 호랑이는 거드름을 부리며 다른 동물들에게 발언하게 하였다.
- ② 호랑이가 자라의 외양에 주목하여 관심을 보이자 자라는 호랑이보다 먼저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 ③ 자라는 자신을 해치려고 드는 호랑이에게 목을 내밀어 놀라게 한 후 도리랑귀신을 들먹이며 맞섰다.
- ④ 호랑이가 쓸개를 주겠다고 놓아 달라는 것을 듣고 자라는 호랑이가 얼주검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 ⑤ 호랑이는 남생이가 내다보는 것을 보고 자신이 매달려 애걸했던 자라가 자신을 쫓아왔다고 생각하였다.

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종의 노력이 나타나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자라와 호랑이의 화해가 이루어진다.
- ② ㉡은 자라가 자신의 내력을 소개하며 언급한 공간으로, 자라는 호랑이와의 만남을 예상하고 이곳에서 이를 대비하였다.
- ③ ㉢은 호랑이가 안도감을 나타내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호랑이는 살아남은 것을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뜻밖의 행운이라고 여겼다.
- ④ ㉠은 자라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위험에 빠지게 된 공간이며, ㉡은 자라가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언급한 공간이다.
- ⑤ ㉠은 호랑이의 지위가 다른 존재의 발언을 통해 확인되는 공간이며, ㉢은 호랑이가 다른 존재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엄을 부정하는 공간이다.

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각기 다른 주체가 예의를 갖춘 상대의 태도에 대해 보인 반응이다.
- ② ㉡와 ㉢는 동일한 주체가 상대의 당황하는 모습에 대해 보인 반응이다.
- ③ ㉢와 ㉣는 각기 다른 주체가 상대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생긴 위기 상황에서 보인 반응이다.
- ④ ㉠과 ㉢는 동일한 주체가 자신의 숙원이 성취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보인 반응이다.
- ⑤ ㉢와 ㉣는 동일한 주체가 상대의 예상 밖 제안에 대해 보인 반응이다.

4.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설명을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수궁가」는 우화에서 판소리 사설로 발전한 작품입니다. 동물들이 인물로 등장하는 우화 속 세상에 청중의 현실 속 다양한 요소를 중첩하는 방식으로 이야기의 변모가 이루어졌어요. 이로써 부정적 면모를 지닌 다양한 인간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거나, 현실감을 부여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강조하거나, 현실이라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것으로 과장되게 표현하여 청중의 흥미를 높였어요.

- ① '사냥개'에 대한 토끼의 평가에서, 현실에서 사냥개가 사람에게 길들여진 것을 우화 속 상황에 중첩함으로써 강자의 환심을 사 이익을 얻는 인간에 대한 비판이 드러남을 알 수 있군.
- ② 자라가 '동의보감'을 떠올린 데서, 현실의 의서를 우화 속 상황에 중첩함으로써 명약을 탐하는 속내를 지식에 내세워 숨기는 위선적 인간에 대한 비판이 드러남을 알 수 있군.
- ③ '포수'에 대한 호랑이의 태도에서, 현실의 인간이 지닌 힘을 우화 속 인물들의 위계질서에 중첩함으로써 권력자가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 위신을 잃는 상황이 강조됨을 알 수 있군.
- ④ 호랑이가 '선영'을 언급한 데서, 현실의 윤리를 우화 속 인물이 내세운 구실에 중첩함으로써 자손의 도리를 말하며 곤란한 처지를 벗어나려는 인물의 절박한 상황이 강조됨을 알 수 있군.
- ⑤ 호랑이가 '해남'에서 '암록강' 가까이 떨어진 데서, 현실의 지명을 우화 속 공간에 중첩함으로써 실제라면 단숨에 닿기 불가능한 거리를 이동하는 상황이 과장되게 표현된 것임을 알 수 있군.

[5~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본)

(가)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가 있다
 빛나는 때를 위해 소금을 뿌리며
 우리는 이 저녁을 떠돌고 있는가
 사방을 둘러보아도
 등불 하나 켜 든 이 보이지 않고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는다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가 있다
 잊혀진 ㉠한 목소리 잊혀진 다른 목소리의 끝을 찾아
 목메이게 부르짖다 잦아드는 때가 있다
 잦아드는 ㉡외마디 소리를 찾아 칼날 세우고
 우리는 이 새벽길 숨가쁘게 넘고 있는가
 하늘 올려보아도
 함께 어둠 지새던 별 하나 눈뜨지 않는다
 그래도 두고 온 것들은 빛나는가
 빛을 뿜으면서 한 번은 되살아나는가
 우리가 뿌린 소금들 반짝반짝 별빛이 되어
 오던 길 환히 비춰 주고 있으니

- 이시영, 「그리움」 -

(나)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라.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 햇살뿐이라.
 아까는 ㉡오색딱다구리가
 따다다닥 찍고 가더니
 봐 봐, 시방은 ㉢청설모가
 쪼르르 타고 내려오네.
 사랑이 끝났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그 그리움 날로 자라면
 주먹송이처럼 커 갈 땡감들.
 때론 머리 위로 ㉣흰 구름 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 맞아 보게.
 이별까지 나눈 마당에
 기다림은 웬 것이라만,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그래 그래, 밤이면 잠 뒤척여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 보고
 새벽이면 퍼뜩 깨어나

계곡 물소리도 들어 보게.
 그 기다림 날로 익으니
 서러움까지 익어선
 저 질푸른 감들, 마침내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세상은 어찌 환하지 않으랴.
 하늘은 어찌 부시지 않으랴.

- 고재중, 「감나무 그늘 아래」 -

(다)

천지간에 만물이 소리를 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초목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소리가 나지 않으나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난다. 그런즉 초목이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바람이다. 금속은 때리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소리가 나지 않으나 물건이 때리면 소리가 난다. 그런즉 금속이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물건이다. 무릇 크고 작은 만물이 소리를 내는 것은 또한 반드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으로는 오장이 있고 밖으로는 형체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어찌 소리를 내겠는가. 기(氣)가 안에 쌓이고 밖으로 드러난 뒤라야 소리가 나는 것이다. 그런즉 사람이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기이다.

소리는 한 가지가 아니니, 쓸모없는 소리가 있고 쓸모 있는 소리가 있다. 재채기 소리와 코 고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 가운데 쓸모없는 것이고, 탄식하고 담소하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 가운데 쓸모 있는 것이다. 쓸모 있는 소리에는 아름다운 소리와 추한 소리가 있다.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좋아하면 아름다운 소리이고, 미워하면 추한 소리이다. 아름다운 소리에는 실상이 있는 소리가 있고 흠어지는 소리가 있다. 입에서 나와 글로 쓰이지 못하면 흠어지는 소리가 되고, 입에서 나와 글로 쓰이면 실상이 있는 소리가 된다. 실상이 있는 소리에는 바른 것이 있고 샅된 것이 있다. 또 바른 것 같으면서 샅된 것도 있고, 혹 샅된 것 같으면서 바른 것도 있다. ㉥사람의 소리로서 남에게 듣기 좋고, 남에게 듣기 좋아 글로 쓰이고, 글로 쓰였으면서 바름에 합당하다면 그것을 일컬어 ㉦좋은 소리라 한다.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최립은 좋은 소리를 내는 사람에 가깝다. 그의 문장이 비록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뜻은 바름을 향한다. 그러니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바르게 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내가 들으니 소리를 내는 만물은 그 본체가 크면 그 소리 또한 크고, 그 본체가 작으면 그 소리 또한 작다고 한다. 최립은 소리가 크니 그 본체가 큰 것을 알 만하다. 사람의 본체는 마음이니 그의 마음이 가히 크다고 하겠다. 내가 또 들으니 크게 부딪치면 큰 소리가 나며, 작게 부딪치면 작은 소리가 난다고 한다. 큰 바

PART 5



갈래 복합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자남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 이 지순한 길은 바다로 기울었다.

길에는 자갈이 빛났다. 건조한 가을길에 가쁜 나의 신발(겨우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를 벗은……) 길은 바다로 기울고 발바닥에 느껴지는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겨우 시야가 열리는 남색, 심오한, 잔잔한 세계. 하늘과 맞닿을 즈음에 이 신비스러운 수평의 거리감.

유자남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 굴이 열리는 이 당연한 길은 바다로 기울고, 가쁜 나의 신발.

나의 뒤통수에는 해가 머물고, 설레는 구름과 바람. 저녁 햇살 속에 자갈이 빛나는 길은 바다로 기울고, 나의 발바닥에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오오 기우는 세계여.

- 박목월, 「경사」 -

(나)

내 조상은 뜨겁고 부신
태양 체질이 아니었다. 내 조상은
뒤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달의 승배자였다.

그는 달빛 그림자를 밟고 뛰어놀았으며
밝은 달빛 머리에 받아 글을 읽고
자라서는, 먼 장터에서
달빛과 더불어 집으로 돌아왔다.

낮은
이 포근한 그리움
이 크나큰 기쁨과 만나는
힘겨운 과정일 뿐이었다.

일생이 달의 자장(磁場) 속에
간헐기를 원했던 내 조상의 달빛 체질은
지금
내 몸 안에 피가 되어 돌고 있다.

밤하늘 떠오르는 달만 보면
웬지 가슴이 멍해져서
끝없이 야행(夜行)의 길을 더듬고 싶은 나는

아, 그것은 모체의 태반처럼 멀리서도
나를 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보이지 않는 인력(引力)이 바닷물을 끌듯이.

- 이수익, 「달빛 체질」 -

(다)

천지 만물에는 큼이 있고 작음이 있다. 큼과 작음은 사물의 형태이다. ㉠형태가 처음 생겨나면 그 종류가 이미 구별되니, 누가 바꿀 수 있겠는가. 하지만 작으면서도 크고 크면서도 작은 이치가 또한 없지 아니하다. 무엇보다 작은 것이 대나무 도시락의 밥과 한 그릇의 국인데, 그것에서 표정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사물은 작는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 크게 여기는 것이다. 무엇보다 큰 것이 진나라와 초나라의 부유함인데, 성인(聖人)은 ㉡“내가 무슨 부족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사물은 큰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작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물에는 큼과 작음이 일찍이 없었던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대처함이 어떠한지에 달린 것일 뿐이다.

우 상사 사양(馬上舍士仰)은 약봉의 아래에 자리를 잡고 산다. 집터가 몇 이랑도 되지 않고 따로 지붕을 이었으니, 집 가운데서도 지극히 작은 경우이다. 그래도 사양은 그 집을 편히 여기며, 자고 거처하는 집을 ‘용연사(容燕舍)’라고 명명하였다. 그 집이 제비 둥지를 겨우 수용할 수 있는 정도라는 의미이다. 사양이 언젠가 ㉢나에게 집의 규모를 말한 적이 있었는데, 표정에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듯한 기색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웃으며 말해주었다.

“군(君)의 집은 정말 작네. 하지만 작다고 여기면 작은 것이고 크다고 여기면 큰 것이니, 군이 어떻게 여기느냐에 달렸을 뿐일세. 저 집이 이미 군을 수용하고, 그 남은 공간에 다시 군의 처와 자식을 수용하며, 뜰에는 국화를 많이 심어 매년 가을이면 향기와 빛깔이 서로 한데 모이고, 처마 밖에는 종남산 일대가 아침저녁으로 푸르른 산 빛을 보내오네. 집이 이 모든 것을 사양하지 않고 다 수용하니, 군의 집은 수용하는 것이 많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외면의 것이지 내면이 아니라네. ㉣군은 독서하는 사람이니 가까운 내면의 것을 시험 삼아 생각해 보게. 군에게 몸을 주재하는 것은 마음이 아닌가. 마

음의 자리는 사방 한 치일 뿐이니, 비록 지극히 작은 사물이라고 말해도 될 것이네. 하지만 한량이 없고 방향이 없는 마음으로서 의로운 행동을 쌓아 생기는 것을 병졸로 삼아 제대로 기르면 천지 사이에 가득하게 된다네. 그래서 소자(邵子)는 ‘베 이불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명아주 국으로 배를 불리고 나서 흥중의 기를 토해 내니 우주에 가득하도다.’라고 하였지. 안락한 오두막 하나가 천지 사이의 커다란 구역이 된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지금은 군은 집으로 군의 몸을 수용하고, 몸으로 군의 마음을 수용하고, 마음으로 과연 능히 천지 사이에 가득한 것을 수용하였으니, 수용한 것의 근본을 바탕으로 정진한다면 집이 그것을 주인으로 삼지 않음이 없을 것이네.”

- 채제공, 「용연사기」 -

» 지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가)

화자와 대상의 관계	_____로 향해 기울어진 길을 걸으며 노화에 대해 생각하는 '나'
상황?	유자나무와 굴나무에 과실이 열리는 길이 바다로 기울어짐 → 가쁜한 _____을 신고 신비스러운 경사감을 느끼며 걸어감 → _____하고 잔잔하며 신비스러운 바다를 봄 → 가쁜한 신발을 신고 바다로 기울어진 길을 걸으며 _____을 느낌

(나)

화자와 대상의 관계	달의 _____였던 조상의 체질을 이어받아 달에게 이끌리는 '나'
상황?	'나'의 조상은 _____의 송배자였음 → 그(내 조상)는 낮을 힘겨워하고 달빛을 지향하며 생애를 보냄 → 조상에게서 달빛 _____을 이어받음 → '나'는 달에게 이끌림

» 지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다)

01	만물의 크고 작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_____에 달려 있음
02	자신의 _____을 작다고 여기는 사왕에게 안락한 _____도 마음먹기에 따라 천지 사이의 큰 구역이 될 수 있다고 전함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일부 시행을 명사로 종결하여, 바라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나)는 의인화된 대상을 활용하여, 대상이 가지는 의미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다)는 서로 다른 관점을 대비하여, 글쓴이가 주목한 세태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나)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모두 감탄사를 활용하여, 대상에서 촉발된 정서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2.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2연과 4연을 통해, 1연에서 화자가 자신의 조상을 '달의 송배자'라고 생각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군.
- ② 4연을 통해, 화자의 '몸 안'에 '돌고 있는 '피'의 속성은 '일생' 동안 '내 조상'이 '원했던'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6연을 통해, '그것이' '멀리' 있음으로 인해 화자가 느끼는 아쉬움이 '모체의 태반'을 떠올리는 행위로 해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2연과 3연을 통해 알 수 있는, 함께하는 대상에 대한 '그'의 정서를 바탕으로, 6연에서 '나를 끌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것'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6연의 '바닷물'과 관련된 자연 현상을 통해, 4연의 '달의 자장'과 화자가 맺고 있는 관계의 특징을 알 수 있군.

INTRO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책 페이지	해설 책 페이지	지문	문제 번호 & 정답				
P.014	P.006	작자 미상, 「수궁가」	1. ②	2. ④	3. ③	4. ②	
P.016	P.012	이시영, 「그리움」 / 고재종, 「감나무 그늘 아래」 / 이이, 「최립에게 주는 글」	5. ⑤	6. ①	7. ④	8. ④	9. ②
P.020	P.019	박태순, 「독가촌 풍경」	10. ⑤	11. ⑤	12. ①	13. ③	
P.022	P.025	구강, 「복새곡」 / 작자 미상, 「이 시름 저 시름～」 / 작자 미상, 「강원도 설화지를～」	14. ②	15. ④	16. ①	17. ③	

☑ 박광일의 CHECK POINT

[1~4] 작자 미상, 「수궁가」

최근 수능에서 고전산문은 EBS 연계 교재에 실린 작품이 출제되고 있어. 2023학년도부터 2026학년도 수능까지 고전산문 지문에는 모두 EBS 연계 작품이 제시되었지. 특히 「수궁가」는 익숙한 작품이지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대목이 아닌 생소한 부분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연계 작품을 꼼꼼히 공부하지 않았다면 생소했을 수 있어. 또 갈래의 특성상 인물의 지칭어도 다양해서 대사나 행동, 심리의 주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문제를 푸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어. 하지만 그럴수록 차분하게 인물 간의 관계와 세부 내용을 파악하며 읽어야 해. 특히 제시된 외적 준거를 기준으로 지문을 분석해야 하는 문제는 지문과 <보기>, 선지의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따져 봐야 해. 평소에 평가원 기출과 연계 교재에 수록된 고전산문 지문들을 꼼꼼히 분석하며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 보자.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본)

[중모리] 그때에 사슴이 발론*하되 근래 인간이 하 무서워 짐승을 잡아먹기 온갖 피가 다 생기고 산중에 수목이 없어 은신할 곳 없어지니 각기 의견 들어 보면 방책*이 있을런가 이 모임을 했사오니 수령님의 좋은 꾀를 일러 주옵소서

[아니리] 호랑이가 수령 말을 듣더니마는 거두름을 피우며 사슴이 자신을 '수령님'이라 부르자 거만해진 호랑이 오늘은 노소고하를 막론하고 자세히 말해 보라 토끼가 여짜오되

[자진모리] 사냥개라 하는 것은 같은 우리 모족(毛族)*으로 사람집에 기식하니 제 무슨 아침으로 내 잘 맡는 자랑하여 심산궁곡 층암절벽 찾고 찾아 들어와 동계 간 살해만 하니 수령님 이후로는 사냥개를 있는 대로 다 잡아 잡수으면 그 덕이 모든 금수에 게 미치오리다 호랑이가 사냥개를 잡아먹을 것을 방책으로 제안하는 토끼

[아니리] 호랑이 듣더니만 다 잡아 먹었으면 네 원통함도 풀고 나도 배부른 꼴을 보련마는 일등 포수가 따라다녀 어शल피 몰라다가 조충에 불이 번듯 탄환이 쑥 나오면 거 내 신세는 어쩔 것이나 조충을 지닌 포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토끼의 제안을 거절하는 호랑이

그때에 별주부 저기 토 선생 계시오 부른다는 것이 수로 팔천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오자니 아래턱이 뺏뺏하여 토 자가 살짝늘어져 호 자로 되었었다 저기 호 생원 계시오 불러 놓으니 첩첩산중 호랑이가 생원 말 듣기는 제 평생 처음이라 @반기 듣고 내려오는디 자신을 호 생원이라고 뉘여 부르자 신이 나 산에서 내려오는 호랑이 장면 01

[엇모리] 뱀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에머리를 흔들며 양 귀 찢어지고 몸은 얼송털송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남고 동아 같은 뒷다리 전동 같은 앞다리 새낫 같은 발톱으로 엄동설한 백설 격으로 잔디 뿌리 왕모래를 좌르르르 흘리며 주홍 같은 입 벌리고 흥행행 하는 소리 산천이 진동하고 강산이 뒤늦고 땅이 푹 꺼지난 듯 자라가 @깜짝 놀래여 목을 움치고 가만히 었졌을 제 호랑이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목을 움츠리는 자라

[아니리] 호랑이가 척 내려와 이것 무엇인고 이리 보아도 동굴

동굴 저리 보아도 동굴 동굴아 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것다 옳다 이것 한 입가심 허여 볼까

자라가 @깜짝 놀래여 여보 당신이 뉘라 허시오 호랑이가 자신을 잡아먹으려 하자 당황하며 정체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자라

호랑이 깜짝 놀래 에끼 이것 보아라 도리춤* 속에 배암 잡아넣어 놓은 것같이 생긴 것이 인사성은 밝네 나는 ㉠이 산중 지키는 호 생원 어른이로다

자라가 호랑이란 말을 듣고서 겁짐에 바로 일러 나는 명색이 자라 새끼요

[중모리] 호랑이 @반기 들고 얼시구나 좋을시고 내 평생에 원하기를 왕배탕이 원일러니 오늘날 만났구나 맛진 진미를 먹어 보자 별주부가 지리임을 알고 잡아먹을 생각에 기뻐하는 호랑이 으르르르양 히고 달려드니 자라 들고 깜짝 놀래여 아이고 내 자라 아니요 이놈 그러면 무엇인고 내가 두꺼비요 두꺼비 같으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채로 불에 살라 술에 타 먹었으면 만병회춘 명약이라니 너를 먹으리라 아이고 내 남생이요 남생이 같으면 더욱 좋다 습기에는 제일이라 하니 너를 산 채로 먹으리라

[아니리] 별주부 들고 기가 막혀 무작정 자신을 잡아먹으려 드는 호랑이를 보고 기막혀 하는 자라 이 급살 맞아 죽을 놈이 동의보감을 얼마나 통달 허였는지 보는 대로 약 취해 먹기로만 드니 기왕 죽을 바에는 속임수나 한번 써 보고 죽을 밖에 없구나 히고 목을 길게 내놓으며 내 이놈 호랑아 내 목 나간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신체적 특징을 사용해 호랑이에게 속임수를 쓰려는 자라

호랑이 @깜짝 놀래 에끼 이것 목 나온다 고만 나오시오 하루 수천 발 나오겠소 대체 당신이 명색이 무엇이오 자라가 목을 길게 늘어 보이자 겁을 먹은 호랑이

나는 수국 전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뉘라리로다 이놈 내 목 이 모양 된 내력을 들어 보아라 장면 02

[자진모리] 우리 @수궁 퇴락하여 영덕전 새로 질 제 일천팔백 칸 기와를 내 손으로 올리다가 추녀 끝에 푹 떨어져 목으로 잘 각 꺼꾸러져 이 모양이 되었기로 명의다려 문의한즉 호랑이 쓸

PART 1

현대시

문제 책 페이지	해설 책 페이지	지문	문제 번호 & 정답					
			1.	2.	3.	4.		
P.028	P.034	❶ 황동규, 「살구꽃과 한때」 / 신석정, 「역사」	1. ㉓	2. ㉕	3. ㉖	4. ㉔		
P.030	P.038	❷ 이기철, 「청산행」 / 김현승, 「사실과 관습: 고독 이후」	1. ㉕	2. ㉔	3. ㉓	4. ㉓		
P.032	P.042	❸ 조지훈, 「맹세」 / 오규원, 「봄」	1. ㉔	2. ㉒	3. ㉖	4. ㉓		
P.034	P.046	❹ 유치환, 「채진」 / 나희덕, 「음지의 꽃」	1. ㉑	2. ㉔	3. ㉒	4. ㉓		
P.036	P.050	❺ 신동엽, 「향아」 / 기형도, 「전문가」	1. ㉒	2. ㉔	3. ㉑			
P.038	P.053	❻ 오장환, 「종가」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1. ㉒	2. ㉔	3. ㉖	4. ㉓		
P.040	P.057	❼ 김기림, 「연료」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1. ㉔	2. ㉕	3. ㉒			
P.042	P.060	❽ 이용악, 「그리움」 / 이시영, 「마음의 고향 2 - 그 언덕」	1. ㉕	2. ㉒	3. ㉔			
P.044	P.063	❾ 김수영, 「사랑」 / 김혜순,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1. ㉕	2. ㉒	3. ㉑			
P.046	P.066	❿ 조지훈, 「산상의 노래」 /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1. ㉓	2. ㉔	3. ㉖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마을 안에 차 집어넣고
이 집, 한 집 건너 저 집, 또 저 집,
구름처럼 피고 있는 **살구꽃**과 만난다.
작은 생명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에 대한 관심
빈집에는 작지만 **분홍빛** 더 실린 꽃구름,
때맞춰 **깎** **벌들이** 이리저리 날고
날개맥(脈) 털 여문 **나비들**이 저속으로 오간다.
호의적 시선을 보냄
소의 순한 얼굴이 너무 좋아
소 앞세우고 오는 **마을 사람**과 **눈웃음**으로 인사한다.」
하늘 구름이 온통 동네에 내려와 있으니
말을 걸지 않아도 말이 되는군.
차에 올라 시동 걸고도 한참 동안 밖을 내다본다.
대상의 일사성에 주목
꽃들의 생애가 좀 짧으면 어때?
달포 뒤쯤 이곳을 다시 지날 때
이 꽃구름들 낡은 귀신들처럼 그냥 **허영**게 매달려 있다면……
꽃도 황홀도 때맞춰 피고 지는 거다.」

다리를 건너 가속 페달 밟으려다 말고
천천히 차를 몬다.
몸 돌려 보지 않아도
차 거울들 속에 꽃구름 피고 있고
차 거울로는 잘 잡히지 않으나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내적 인식
하늘의 연분홍을 땅 위에 내려 받는 **검은 동치들**이
군소리 없이 구름을 잔뜩 인 채 서 있겠지.
차를 멈추고 뒤돌아본다.
아 하늘의 기둥들!」

- 황동규, 「살구꽃과 한때」 -

(나)

1
사소한 보일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관심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볕**이라거나 보드라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저리도 조촐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대상의 영속성에 주목**「길이 멀하지 않을 것」**이다.

2
부정적 상황
「바윗돌처럼 **공공**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
잔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 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
라거나 역사와 힘의 위대함을 기림**「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
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의(囚衣)***를
자작나무 허을 벗듯 **홀홀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3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 맞추고 살아가듯 **너의 뜨거운 심장**
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쌔처럼 원통** **괴어** 있는 **그 눈망울**과 그
리고 항상 함께하는 존재와의 결속**「내가 꼬옥** **잡**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치
럼 타고 오는 **뱅어**같이 **예쁘디예쁜 손**」과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가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
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 신석정, 「역사」 -

>> 지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화자와 대상의 관계	살구꽃 핀 마을 의 정경을 한참 바라보는 사람
상황?	차를 마을 안에 집어넣고 살구꽃 을 봄 → 벌들, 나비들, 소의 얼굴 을 봄 → 마을 사람과 눈웃음 으로 인사함 → 차에 타서 한참 밖을 내다 봄 → 다리를 건너 천천히 차를 몰며 차 거울 로 살구꽃을 봄 → 차를 멈추고 뒤돌아봄

>> 지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화자와 대상의 관계	달래꽃 을 보며 사소한 대상의 위대한 힘을 떠올리는 '나'
상황?	조촐하게 피어난 한 송이 달래꽃을 봄 → 달래꽃이 위대한 역사 와 힘을 가졌다고 생각함 → 너와 환히 트인 길 로 더불어 가고자 함

이것만은 챙기자

*수의: 죄수가 입는 옷.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답풀이

③ 중심 소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살구꽃'이라는 중심 소재를 '꽃구름', '꽃' 등으로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꽃'이 '때맞춰 피고 지는' 자연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달래꽃'이라는 중심 소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민중들의 연대와 생명력에 대한 예찬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가)에서는 '분홍빛 더 실린 꽃구름', '검은 등치들' 등을 통해 시각적 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나)에서는 '보드라운 바람', '뜨거운 심장' 등을 통해 촉각적 심상을, '푸른 수의'를 통해 시각적 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 ② 영탄적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가)는 '아 하늘의 기동들!'에서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검은 등치들'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을 뿐,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지는 않았다. 한편 (나)에서는 영탄적 어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는 '꽃'과 '황홀'이 '때맞춰 피고 지는' 모습과 '낯은 귀신들'처럼 '그냥 허열게 매달린' 모습이 대립적 의미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나)에서는 '바윗돌처럼 공공 얼어붙었던 대지'가 '달래꽃의 긴긴 역사', '막아 낼 수 없는 위대한 힘' 등과 대립적 관계에 놓이면서 억압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 암시된다고 볼 수 있다.
- ⑤ 말을 주고받는 방식을 사용하여 의인화된 대상과의 교감을 나타내고 있다.
(나)의 '흠뻑 벗고 싶은 달래꽃'에서 '달래꽃'을 의인화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말을 주고받는 방식은 나타나지 않으며 또한, (가) 역시 말을 주고받는 방식은 나타나 있지 않다.

가름잡기

- ② 영탄: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표출하는 표현 방법. 감탄사와 감탄 어미를 사용하거나 호칭어를 사용하고, 명령이나 권유, 설의의 형식을 취하는 것까지도 영탄법으로 볼 수 있음.
- ⑤ 의인: 사람이 아닌 것에 인격을 부여하여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

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정답풀이

⑤ [E]: 대상과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에서 '차를 멈추고 뒤돌아봄으로써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E]에서 화자는 '차를 멈추고 뒤돌아서' '군소리 없이 구름을 잔뜩 인 채 서 있는' '검은 등치들'을 보고 '아 하늘의 기동들!'이라고 말하며 감탄하고 있으므로, 대상에 대해 경외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화자는 '차를 멈추고 뒤돌아' 보는 행위를 통해 대상을 응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상과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풀이

- ① [A]: '이 집', '저 집'과 '빈집'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대상의 형태와 색채를 인식하고 있다.
[A]에서 화자는 '이 집, 한 집 건너 저 집, 또 저 집'에서 '빈집'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구름처럼 피고 있는 살구꽃'과 '분홍빛 더 실린 꽃구름' 등으로 대상의 형태와 색채를 인식하고 있다.
- ② [B]: '소'와 '마을 사람'에게 호의적 시선을 보내고 '하늘 구름'의 영향을 의식하고 있다.
[B]에서 화자는 '소의 순한 얼굴'을 '너무 좋'다고 표현하며 '마을 사람과 눈웃음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 또한 '하늘 구름이 온통 동네에 내려와 있으니 / 말을 걸지 않아도 말이' 된다고 하였다. 즉, '소'와 '마을 사람'에게 호의적 인 시선을 보내며 '하늘 구름'의 영향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C]: '다리를 건너'며 '꽃구름'과 이별하는 상황에서도 '차 거울들'에 비친 대상을 보고 있다.
[C]에서는 차를 몰고 '다리를 건너'는 상황에서도 '차 거울들'에 비친 '꽃구름'을 보고 있었으므로 '꽃구름'과 이별하는 상황에서도 '차 거울들'에 비친 '꽃구름'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D]: '차 거울로는' 시야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는 '검은 등치들'이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D]에서 화자는 '차 거울로는 잘 잡히지 않'아 시야에 보이지는 않지만 '검은 등치들이 / 군소리 없이 구름을 잔뜩 인 채 서 있겠지.'라고 추측하며 '검은 등치들'이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가름잡기

- ⑤ 경외감: 대상을 위대하고 숭고하게 여기는 마음.